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으로 경기도 아파트 구매 가능

갈수록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일부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이 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 부동산114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전세 가격은 3억 4천47만 원이었는데, 경기도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9천268만 원이었습니다. 즉,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금으로 낸 돈으로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사도 돈이 남는 것입니다. 2년 전에는 서울 아파트의 전세금으로 경기도 아파트를 사려면 1천만 원 정도, 4년 전에는 5천만 원 이상을 더 마련해야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9천만 원 이상이 올랐다는 뜻인데, 이번 기회에 전세금을 빼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Kaynak: 뉴스로 한국어 공부하기, News in Korean, Talk to me in Korean, Long Tail Books,2015, s: 104

Konu ile İlgili Sözcükler

- 전세
- 월세
- 전셋값
- 평균
- 매매
- 부동산
- 아파트
- 가구당

- 증가하다

Tartışma Soruları

- Kore'de ev kiralama sistemi
- Seul'de yaşam
- Seul'deki konut edinme ve ev kiralama
- Diğer bölgeler ve Seul'un karşılaştırılması